

# KSHS Newsletter

한국원예학회 소식 Vol. 1, No. 2 June 2011

## 인사말씀



경애하는 회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우리 학회의 큰살림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고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학회를 아끼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빈약하기 짝이 없던 학회가 오늘날 훌륭히 성장하여 다른 학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진 꽃을 피우게 된 이면에는 많은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봉사가 있었던 점을 기억하며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장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현안인 HEB지의 SCI 등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낭보가 들려 올 것으로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셔서 이분들의 노고를 뒷받침해 주신다면 기쁜 날이 더 당겨질 것입니다.

내후년 2013년이면 우리 원예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네 삶에서 50세는 이순(耳順)이라 하여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경륜을 갖추면서도 아직은 젊음의 정열도 간직하고 있는 나이이겠습니다만, 학회로서도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면서 이후의 보다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시점임에 비추어, 원로 선배님들의 조언과 젊은 회원님들의 패기를 모아 의미 있고 장중한 기념행사를 준비할까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또한 학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마당이라 걱정도 됩니다만, 그동안 IHC 2006과 AHC 2008에서 보여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저력으로 보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여러 일 중에서도 기념책자 발간 등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서술 등 시간을 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둘러 계획하고 책임인 분들께 일을 맡겨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학회를 위한 일인 만큼 기꺼이 힘을 보태주시길 믿고 죄송한 부탁을 드립니다. 늦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큰 열개가 제대로 짜여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의(如意)하시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6월 15일

(사)한국원예학회 회장 김 병 운



**(사)한국원예학회**  
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한국원예학회 소식 [제1권 제2호]

발행처 | (사)한국원예학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

Tel. 031-241-6885~6 Fax. 031-242-9280

E-mail. info@horticulture.or.kr

발행인 | 김병운

발행일 | 2011년 6월 15일

편집위원 | 임용표(충남대학교), 오 욱(영남대학교),

이준구(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편집인 | 박유정(한국원예학회)

## 학회소식

### ◎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2011년도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94차 춘계학술발표회'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학회장으로 김병운 교수(목포대학교)가 취임하였고, 차기회장으로 이용범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선출되었으며, 6개 분과의 우수논문상이 시상되었습니다.

- 공동 주최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심포지엄 후원)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협 중앙회·원예산업신문

- 협찬 : 나라원예, 바보난농원, 삼인주식회사, 신농화훼종묘(주), 신젠타종묘(주), 우리화훼종묘(주), 제주관광공사, (주)비엠에스, (주)에코텍, (주)한국과기산업, 코레곤종묘, 한국프러그연구소

• 등록자 수 : 총 572인(사전 355, 현장 217)

• 발표 건수 : 총 597건(특별강연 2, 심포지엄 9, 구두 43, 포스터 543)

2011년도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95차 추계학술발표회는 10월 27~29일 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1년도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2011.05.26)

### ◎ 2011년도 우수논문상 및 우수발표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 제34회 우수논문상

김성겸(서울대학교), 전지혜(농촌진흥청), 권혜진(천안연암대학), 이희재(서울대학교), 손정익(서울대학교), 박용서(목포대학교)

#### • 제1회 우수구두발표상

조정은(세계김치연구소), Xiaonan Li(충남대학교), 이준형(서울대학교), 임명규(서울대학교), 김윤진(서울대학교), 윤나희(서울시립대학교), 권혁준(충북대학교)

#### • 제7회 우수포스터발표상

Jiwei Ruan(강릉원주대학교), 김수진(서울대학교), 정선우(서울대학교), 이재준(경북대학교), 강석범(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나래(충북대학교), 노재민(서울시립대학교), 박수진(서울대학교), Hai-Yan Cui(충북대학교), 박종인(순천대학교), 진민아(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영주(목포대학교), 송인자(제주대학교), 차미경(제주대학교), 강우현(서울대학교), 박희주(상명대학교), 이영분(서울시립대학교)

### ◎ 2011년도 신입회장단 선출

• 차기회장 : 이용범(서울시립대학교)

• 부회장 : 채소 - 고관달(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과수 - 박용서(목포대학교) / 화훼 - 박천호(고려대학교) / 유전육종 - 김용권(농협중앙회) / 시설원예 - 손정익(서울대학교) / 수확후관리 - 미정 / 산업체 - 변상지(사카타코리아) / 산학연협력 - 최동로(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감사 : 윤무경(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희재(서울대학교)

회원동정

◎ 축하드립니다

- 손정의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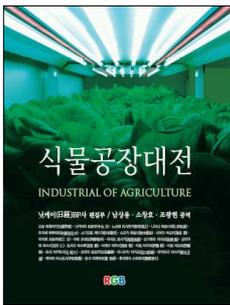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 해 가장 우수한 논문을 뽑아 시상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에 손정의 교수(서울대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2011.07.05).

손 교수는 '파프리카의 생육 및 환경 요인과 증산량과의 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하게 되었는데, 보다 정밀한 증산량의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급액과 배액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 신간안내

- 식물공장대전(Industrial of Agriculture)

남상용·소창호·조광현 공역/삼육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발행/양장 234면(울컬러)/88,000원



이 책은 최신 식물공장의 완결판에 가깝다. 다양한 23명의 저자들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식물공장의 노하우를 가감 없이 드러내 준다. 일본 농업의 고뇌와 문제점을 조명해 가면서 식물공장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근거 있게 그 가능성을 짚어준다. 본문에서는 최적 재배조건, 생산설비, 인공토양은 물론 온도와 광원의 다양한 특성까지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일본의 식물공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술적 동향뿐만 아니라 식물공장의 새로운 도전과 현장 애로점을 해결하는 첨단의 연구동향까지 폭넓게 소개되어 있다. 또 식물공장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동안 선구자들이 실패했던 경험과 문제점, 성공담을 통해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끝부분에는 수출산업으로서 식물공장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중동과 중국 등의 해외정보를 예로 들면서 일본 정부의 국가지원책도 다루고 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농업입국을 시도하는 도전적인 책으로 일본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도 관련 당사자들이나 농업, 공업, 경영과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필독하여야 하는 책이다.

※ 구입문의 : RGB 출판사, 139-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T. 02-3399-1745, F. 02-3399-1741, E-mail, 36cactus@naver.com

발전기금을 납부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재서(우리화훼종묘주) 회원은 1백만원을 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2011.03.23).
- 김규원(전 영남대학교) 교수는 1백만원을 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2011.05.23).
- 윤진영(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 명예회원은 10만원을 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2011.05.26).
- 손정의(서울대학교) 교수는 제34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원 전액을 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2011.05.26).
- 김윤진(서울대학교) 회원은 2011년 춘계학술발표회 우수구두발표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만원을 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2011.05.27).
- 윤나희·노재민·이영분(서울시립대학교) 회원은 2011년 춘계학술발표회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30만원을 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2011.05.27).

## 연구회소식

### ◎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 창립, 양승구 박사 무경운 지속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한국원에학회 회원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양승구 박사는 지난 4년간 무경운 지속농업을 연구한 결과, 관련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경운 지속농업은 전작물 재배 시 형성된 두둑을 경운하지 않고 재사용하며 계속하여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고랑경운과 같은 최소경운을 포함한다.

무경운 지속농업은 다른 농법보다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고 탄소발생량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생태유기농의 하나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현저하게 절감시킬 수 있어 농촌 노령화 및 부녀화 대응기술로 유망한 농업기술이다. 무경운 지속농업은 수량이 감소되리라는 우려와 달리 무경운 첫 재배부터 수량이 증수 또는 감소되지 않고 상품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운농업은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토양 구조 및 토양 내 수분 이동 통로를 파괴하지 않아 땅속 깊게 뽀여 내린 작물의 뿌리가 지상부와 연결되고 뿌리가 미소동물과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토양의 물리성을 향상시킨다. 무경운 토양은 경운토양에 비하여 가비중이 감소되어 공극률과 토양의 입단화가 증가되어 토양의 배수성과 보수성이 향상된다. 또한 무경운 재배를 통해 토양의 구조가 안정화되어 방선균과 같은 유용 미생물의 군집이 증가되며, 지렁이와 토티기 등 토양 미소동물의 종과 개체수가 증가되어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경운 지속재배는 경운재배에 비하여 고추와 멜론 등의 상품성과 수량이 증가되고, 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구 박사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시험포 주변 농가에 파급되었고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지난 2011년 4월 29일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가 결성되어 창립기념 세미나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바 있다.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는 무경운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농협, 대학교수 등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회로 출발하였다.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 창립총회와 기념 세미나는 그동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무경운재배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국내외 무경운농업에 대한 소개, 실천농가 사례발표, 무경운재배 시험포 현장견학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는 연구결과의 조기 확산,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작물과 작형별로 무경운 지속농업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URL: [www.notill.or.kr](http://www.notill.or.kr), Tel. 061-33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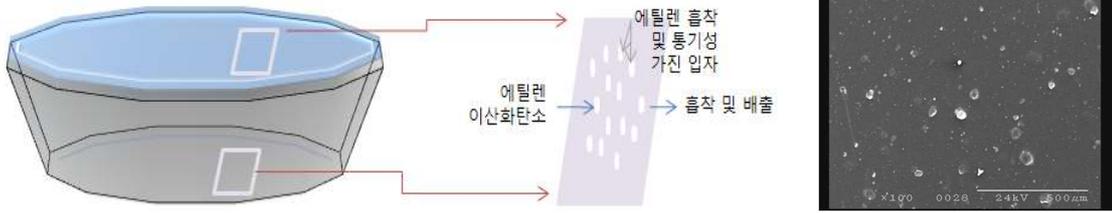
▲ 한국무경운농업연구회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2011.04.29)

## 일반정보

### ◎ 신기술 신선편이 제품을 위한 고투기성 용기 또는 포장재

신선 농산물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수확 후에도 물질대사와 생리작용을 계속하는데, 주위의 환경에 따라 대사나 생리 작용의 속도가 달라진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 인자로 온도, 습도, 산도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에틸렌 농도, 병원성 미생물 등을 작물에 적합하게 조절하거나 제어해야 한다. 기존 신선편이 제품은 오염원의 감염과 갈변을 막기 위해 PET, PE, PP, Ny/PE 필름 포장재를 사용하여 접착시켜 밀봉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내부 신선편이 산물의 호흡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취로 인해 상품성이 빠르게 하락한다.

이에 대응하여, 관행 신선편이 용기처럼 미생물의 이동은 차단하고, 내부의 습도는 유지됨과 동시에 투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선편이 제품의 용기, 밀봉용 뚜껑 또는 포장재에 에틸렌, 이산화탄소, 산소 등을 흡착 및 배출시키는 물질을 혼입하여 용기를 제작하였고 이를 특허출원하였다. 발명한 신선편이 용기와 포장재의 내부 산소농도는 기존 용기에 비해 증가,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 에틸렌 농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다양한 혼합 과일에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 기존의 용기나 포장재에 비해 신선편이 제품의 선도 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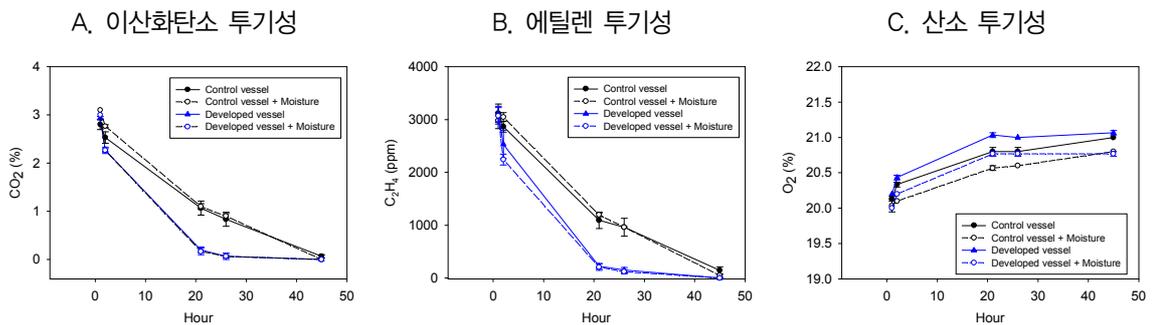
▲에틸렌 흡착 및 통기성 입자를 혼입한 용기 모식도 및 필름 확대 모습

• 특허 사항

- 특허명 : 신선편이 제품용 용기 또는 포장재
- 출원번호 : 10-2010-0107807
- 발명자 명칭 : 조미애, 최선영, 홍윤표, 최지원, 정대성, 황정환

\* 참고자료 : 개발 용기의 기체 투기성

- 실험방법 : 개발용기와 관행용기에 이산화탄소와 에틸렌을 용기별로 같은 농도가 되도록 주입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용기 내 습도 조건에 따른 투기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용기별로 고습처리구와 일반 처리구를 두었다.



◎ 회비 납부안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회비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서 전자결제해 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회원님은 계좌이체(농협 125-01-108602, 우체국 104075-01-001508)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별 연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11년부터 학회지 구독을 원하시는 학생회원은 정회원으로 회원변경을 사무국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구분	회장	부회장	이사	정회원	학생회원
금액(원)	300,000	150,000	80,000	50,000	20,000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로 보내 주시면 "한국원예학회 소식(KSHS NEWSLETTER)"에 실어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 연구동향 : 원예분야 국내 우수 연구실, 우수분과 연구현황 소개
- 회원동정 : 수상, 학위취득, 취업소식, 인사이동
- 일반정보 : 신제품, 신기술, 정보통신, 시간안내, 행사안내
- 기타소식 : 연구회 및 관련학회 소식, 국제대회 참관기, 해외 관련 학술대회 정보